

# 목양칼럼

## 내 인생의 화분

오늘, 본당 앞을 보셨나요?  
 화분마다 솟아오른 빨간 포인세티아를.  
 겨울꽃, 크리스마스의 꽃으로 알려진 포인세티아는  
 “내 마음은 불타고 있다” “축복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아름다움” 을 가지고 있는 포인세티아는  
 그 줄기에서 나오는 흰 액이 “해열제(解熱劑)” 로 쓰인다고 합니다.

저 앞의 작은 화분에는 아름답고 유용한 포인세티아가 피어올랐는데  
 내 인생의 화분에는 어떤 꽃이 피었는지 궁금합니다.  
 색깔은 무엇인지, 향기는 있는지, 모양은 어떤지, 필요는 한지.  
 아니면 아예 아무 것도 없는 빈 화분인지.

곰곰 생각해 보니 몇 주 있다가 사라질 화분, 겨울에 잠깐 피는 꽃이라고  
 포인세티아를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포인세티아 같은 꽃만 피어도 너무 괜찮은 화분이 되겠더라고요.

“내 마음은 불타고 있다” -내 마음도 예수님을 향해 불타고 싶다.  
 “축복합니다” -나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되고 싶다.  
 “강력한 아름다움” -내 짧은 삶도 강력한 아름다움으로 살다 지고 싶다.  
 “해열제” -나도 여러 일로 열 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싶다.

꽃아 피어라, 내 인생의 화분에서.  
 비록 겨울을 사는 인생이지만, 겨울에 피는 꽃도 있더라.  
 겨울 꽃 포인세티아를 보니 참 멋지더라.  
 내 인생의 화분에서, 꽃아 피어라.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b>원로목사</b> 장영춘	<b>담임목사</b> 김성국
<b>부목사</b> 김도현/QPEM (347)450-7736	<b>김재형</b>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b>전도목사</b> 이신은 (646)220-8324	<b>다민족선교사</b> 송요한 (917)940-0596
<b>전도사</b>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웅/QPEM대학부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b>교육전도사</b>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대학부 (646)789-1118
<b>직원</b>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b>찬양대</b>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윤원상	반주 / 윤현주
반주 / 김정운 임세현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7년 12월 17일  
 제 43-51호

##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32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함용식 장로
		2부 / 남형욱 장로
		3부 / 채영주 장로
		4부 / 황인섭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16:1-36	사회자
찬양 CHORUS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았네	호산나 찬양대
	나를 인도하소서	시온 찬양대
	구원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하나님이 주신 선물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15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122 / 1,4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 주일 저녁 예배

성탄절칸타타 'Gloria'

오후 4:15 (12/17/17)	사회: 김수산 장로
예배 선언	사회자
기도	이광윤 집사
성경봉독	사회자
누가복음 2:20	
말씀	김성국 목사
<b>찬송하며</b>	

성탄절칸타타  
'Gloria'

광고	사회자
찬송	125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2 Timothy 3:16-4:8	
Prayer	Deacon Jane Choe
Sermon	Peter D. Kim
<b>"The Breathed Out Word of God"</b>	

##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Т. Лян
от Матфея(Мт.) 1:19-2	
Молитва	брат В. Ан
Проповедь	пастор В. Сон
<b>"Спасающий Свой народ"</b>	

## 수요 기도 예배

제 55기 전도 폭발 수료 예배

오후 8:00 (12/20/17)	사회: 최원일 장로
서창	킹스콰이어
예배 선언	사회자
찬송	84 다같이
기도	김유진 훈련자
성경봉독	정재원 훈련자
사도행전 5:41-42	

찬양 찬양대  
말씀 김성국 목사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나라**

수료증 수여	김성국 목사
헌신찬양	전도폭발 훈련생
간증	권향연, Chunyan Cui, Jenny Whwang
훈련보고 및 광고	사회자
찬송	495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 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Mt.) 25:1-13	
证道	陈玉捷传道
预备主的再来 (II)	

## 새가족 환영회

4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 공동 의회

12/17(주) 오후 3:30 본당

## 성탄절 칸타타 '글로리아'

12/17(주) 저녁 예배

## 교회소식

12월 결실의 달 -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 행사 및 모임

12/17(주) 공동의회, 크리스마스 칸타타 - '글로리아'	12/20(수) 전도폭발 수료 예배
12/24(주) 성탄 주일	12/25(월) 성탄 축하 예배
12/31(주) 쾨장 송년의 밤 / 송구영신예배	1/1(월) 신년 하례 예배 / 성찬식

### 알림

- 공동의회**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12/17(주) 오후 3:30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크리스마스 칸타타 'Gloria'** 연주가 오늘 저녁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연주 후 식사 제공합니다.
- 청장년부 임원 명단** 회장: 송현규 집사 부회장: 정소연 집사  
총무: 송인태 집사 서기: 차진희 집사 회계: 임세현 집사
- 성탄 연합 축하 예배**를 12/25(월)에 1부: 오전 9:00와 2부: 오전 11:00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다른 언어 회중과 함께 드립니다.  
\*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드리는 성탄 특별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예산: \$80,000)  
\* 각 예배 후에 2018년도 달력과 떡을 나눠드립니다.  
\* 오전 11시 예배를 위해 교회 차량을 운행하며 웰컴 주차장 사용 가능합니다.
- 성탄절 포인세티아** 화분을 기증받습니다. 현관 게시판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분 당 \$10
- 12/23(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안수집사부부 (다음주: 지도원)
- 가족기념 장학기금** 김동은 집사

### 새가족

김대규 (요한 3B5, 이성경 - 에스더, 가람 보람 - 유년) 박종인 (마리아 3FM1, 최예진 - 고등)  
정지윤 (에스더 2F12, 오서준 - 유아) 김현정 (청년 선교 2Y2, 김태수 - 청년선교)

### 교우소식

소 천 박영용 집사(박영재 집사의 남편 3BS4)께서 12/12(화) 소천하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 금식기도자

주 / 장은옥 이숙녀 이경자 박지윤	월 / 장은옥 이경애 이광윤 유정애 계대원 신기만
수 / 윤영란 계대원 신기만 최은숙	목 / 이양미 한희견 신기만 최은숙
금 / 서순례 추엘리사 계대원 이정심	토 / 이영경 계대원 신기만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 출석

1부 예배	275	러시아어 예배	22	영어부	32	중등부	55
2부 예배	339	청년 선교부	86	유아부	31	고등부	56
3부 예배	325	주일 저녁 예배		유치부	32	청년 대학부	36
4부 예배	157	새벽 예배	839	중국어 교육부	20	교회 학교 예배	437
영어 예배	154	수요 기도 예배	183	유년부	96	주일 낮 장년 예배	1633
중국어 예배	275	새가족 환영회	13	초등부	79	주일 낮 총계	2070

## 12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이무근 장로

헌신기도	장봉석 장로	황주현장로	이희영 장로	박영권 장로
책임권사	심석순 권사	정금숙 권사	서규일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혁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리아, 바울 주일식사: 마르다(다음주: 다비다)

##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20)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111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7장 1-16절

날도 부쩍 추워져 눈도 내리고 캐롤도 들리고 어느새 2017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해 초 세웠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는데도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 3일 계획도 이루기 힘든데 하나님은 몇백 년 후의 일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가 보이나요?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고 용기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은혜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해피엔딩일 것을 압니다.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요. 그 은혜와 기쁨이 가정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112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7장 17-36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어 모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뤄지는 일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17).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32)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치 않고, 잊지 않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안하실까요? 지금도 살아 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당연히 책임지고 인도하지 않을까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따스해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488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7장 37-53절

하얀색과 검은색이 강렬하게 대비 되듯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의 거역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고지순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떠나 물질, 성공, 이방 신을 따라 갑니다. 모세 때 광야에서도 그랬고, 다윗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솔로몬 때 성소 안에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

한 사람” (49)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말을 해도 도무지 듣지 않은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아무리 호소해도 마음이 요지부동인 사람을 보셨나요? 얼마나 답답한가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두렵고 떨리는 말을 전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53)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길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115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7장 54-8장 1절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그 사람은 용기를 내서 사랑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끼지 않는다면 아쉬울 소리를 할 리가 없지요. 그 말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을 듣고 고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를 막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디 그리 쉽나요? 잘못인지 스스로 알아도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보다 그 사람의 잘못을 찾으려 하지는 않나요? 스테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57-58) 쳤습니다. 잘못을 알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내길 기도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잘못을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자유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117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8장 2-24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고도 마음이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하던 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명령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 능력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 달라고 거래하려 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돈을 벌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22) 고 말씀하십니다. 아기 예수라는 선물, 십자가와 구원이라는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시몬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118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8장 25-40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에디오피아 관리인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돕는 이를 붙여 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라 명하였고, 빌립은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39). 빌립을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할 만큼 그는 바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절대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러한 진지함과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